‘또래상담’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

전남교육청 올해 441개교서 운영
전남청소년미래재단과 협력 지원
상담 지도교사 양성·역량강화 교육

2022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기본교육에 참가한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또래상담’ 역량강화에 나섰다.

또래상담 사업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의 50% 이상 학교가 꾸준히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441교(초 230교, 중 110교, 고 98교, 특 1교, 각종 2교)에서 운영중이다.

‘또래상담자’는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를 말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다문화 친구의 학교 적응을 돕고, 과거 따돌림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및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학교폭력 피해 친구를 돕는 활동을 하는 등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도 교육청은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교육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또래상담자 연합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돕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일과 12일 또래상담 지도교사 94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초등·중등교사 과정을 따로 개설했다.

‘대화하는 친구되기’ ‘대화 잘 이끌어가기’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 ‘대화 종합 연습’ ‘도움되는 활동 찾기’ 등 학교 내 또래상담부 운영 및 또래상담자 지도를 위한 기본소양을 교육하는 한편 지도교사가 활동과제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 강사가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등 교육효과를 높였다.

조영래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대상 1순위는 학생이다. 또래상담 활동이 소외된 학생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전국)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1명 여성가족부장관상 1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 1명 등 학생 3명이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전교생 대상 마음 치유 전화상담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7일까지 마음 치유 전화상담 ‘호심 With Ca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대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가 주관해 지난 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음 건강 실태조사’와 ‘마음 건강검진 Hi-5’ 심리검사를 통해 얻는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1:1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심 With Call’은 실태조사 및 심리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현재 마음 상태를 확인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호심 With Call’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재학생에게는 1:1 맞춤 심리검사 해석 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심층 장기 상담, 집단상담 등을 지원한다. 필요시에는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동원 광주대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장은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맞춤 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전화상담 ‘호심 With Cal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 AI정보영재교육원과 손잡고 SW·AI 인재양성

광주 고교영재 14명 대상
AI 로봇 등 교육과정 운영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SW·AI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 최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의 부설기관 AI정보영재교육원과 SW·AI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 AI정보영재교육원 SW·AI 과정 프로그램’은 SW·AI에 관심 있는 광주시 고교영재 14명(비아고 김성진, 국제고 김준범, 조대여고 김지원, 문정여고 노남경, 조서의, 조수연, 상무고 류재민, 금호중앙여고 박혜은, 정서희, 살레시오여고 서연지, 동아여고 오영서, 대동고 유도현, 전대사대부고 이성훈, 풍암고 최은솔)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AI·SW의 이해 및 활용분야,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AI·SW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1년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실습실에서 매주 토요일을 활용해 총 92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SW중심대학사업단 조영주 담당교수가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AI 로봇의 현재와 미래 ▲DIY 유니버셜 로봇 기획 및 제작 ▲AI기계학습 ▲AI이미지학습을 통한 팀 프로젝트 ▲AI/메타버스 유형과 특징 ▲플랫폼 활용 ▲AI시대 암호 알고리즘(Cipher Algorithm)과 보안(Securit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SW중심대학사업단 노치상 연구원과 이광옥 교수, 소바세교육연구소 오영학 대표,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성욱, 김준현, 하태준 조교진이 함께 참여한다.

조영주 담당교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광역시에서 고교 영재과정 학생들이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미래 AI산업을 이끌어 갈 AI인재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필수교육이 되었다”며 “보다 다양하고 즐기는 프로그램들로 많이 준비한 만큼 SW·AI 고교과정 참여 학생들 모두가 AI·SW를 즐겁게 알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첫 20%대
코로나 이후 뚝 떨어진 교직만족도

교직 만족 12년새 절반으로
“생활지도·학부모 민원 힘들어”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 되겠다는 현직 교사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하회하는 등 교직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는지 묻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은 29.9%에 그쳤다.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를 하회한 것이다. 이전 조사에서는 2012년 36.7%, 2015년 40.9%, 2016년 52.6%, 2019년 39.2%, 2020년 30.1%, 2021년 31.0%이었다.

교직생활에 만족·행복한지 질문에는 33.5%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06년에는 67.8%, 2012년 56.3%, 2016년에는 70.2%까지 올랐고 2019년에도 52.4%였지만, 2020년 32.1%, 2021년 35.7% 등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연속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18.8%)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생활지도방안 부재,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과 명예훼손, 몰카 탐지까지 떠맡겨지는 등 과도한 업무에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떨어졌는지 항목에서는 78.7%가 그렇다고 답했다.

2009년 조사 55.3%, 2010년 63.4% 등에서 2019년 87.4%, 2021년 78.0% 등으로 최근 들어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되고 있는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55.8%였고, ‘그렇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8.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20.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7.3%),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4.1%) 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